



#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목 철도박물관 전시물 시정의 건

---

안녕하십니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입니다.

철도박물관의 마스코트와 전시물의 시정을 요청 드립니다.

## 1. 박물관 곳곳에 설치된 코레일의 캐릭터 키로(Kiro)와 아로(Aro)

키로와 아로의 외모는 성별에 따라 다른 복장과 속눈썹, 색으로 성별을 강조하고 구분하고 있으며 벽화에 그려진 수영복을 입고 다리를 벌린 남성, 오므린 여성 캐릭터의 모습 또한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마스코트의 모습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며 속눈썹을 없애고 치마를 바지로 교체한 경찰청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포순이' 20년 만에 바지 입는다...경찰청, 성차별 규정 수정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694.html#cb](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694.html#cb)

## 2. 2층 '철도가 좋은 100가지 이유' 전시물

90,91,94번은 현재 시행중인 사실과 다릅니다. 혼돈의 우려가 있습니다.

15,17,99,100번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와 100번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문장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뀐 지 한참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박물관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이며 운영사인 코레일은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전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제안합니다.

- 붙임1. 1번 참고자료\_1.jpg
- 붙임2. 1번 참고자료\_2.jpg
- 붙임3. 1번 참고자료\_3.jpg
- 붙임4. 2번 참고자료\_1.jpg
- 붙임5. 2번 참고자료\_2.jpg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제출자 2021-03-15  
이민경

시행 M00007-030033 (2021-03-15) 접수

우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4층 NGO센터 / <http://www.politicalmamas.kr>  
돋움터

전화번호 010-2540-0420 팩스번호 0507-9926-475 / [act@politicalmamas.kr](mailto:act@politicalmamas.kr) / 비공개(6)